

신원 파악 안 된 '16번' 접촉자 198명 10일 넘게 광주 활보

접촉자 378명으로 늘어...확진자 잇단 발생에 통제 불능 우려 광주시 통제 한계 인력 보강 등 행·재정적 지원 긴급 요청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가 광주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인 40대 여성(42·광주시 광산구·국내 16번째 확진자) 접촉자 중 200명 안팎의 신원을 10일 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이 감염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 27일로, 최대 11일 동안 수많은 접촉자가 아무런 통제 없이 광주 도심을 활보하고 다닌 셈이다

광주시는 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번 환자의 접촉자는 어제(5일) 304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160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질

병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오늘(5일) 중으로 160명에 대한 신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16번 환자의 접촉자는 378명으로 늘어났으며, 신원 미확보자도 19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접촉자 수는 이날 현재 국내 23명의 확진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수는 0명부터 최대 219명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날 16번 환자가 머무르며 치료를 받았던 광주21세기병원 직원 46명과 환자·보호자·간병인 88명, 전남 대학교병원 의료진 등 기타 11명 등 총

145명은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잠복기인 14일(2월 17일)이 지난 때까지 격리된다.

시는 또 16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딸(18번 확진자)은 병원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도 어머니와 겹친다고 밝혔다.

질본은 현재 16번 환자 접촉자 중 신원 미확인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인원도 있어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광은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광주21세기병원에 방문한 다녀온 사람 등이 신고를 하면서(16번 환자) 접촉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CCTV 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접촉

자 확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6번 환자가 지난달 27일 증상 발생 후 접촉한 사람이 이날 현재 378명으로 파악되고, 아직까지 198명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주부 김예인(여·36·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아이(4세 남아)와 함께 집 밖에도 못나가고 있다"면서 "감염자나 접촉자가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6번 환자 접촉자 중 감염자가 있을 경우 자칫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 8명과 광주시·자치구 소속 역학조사관 7명 등 총 15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접촉

자 추적과 방역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와 접촉자수가 늘면서 업무 수행에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도 이 같은 자체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날 오전 정부에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자체 통제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관련 업무 직원들도 수일째 밤샘작업을 이어가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정부에 인력보강 등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접촉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총 1234명이라고 밝혔다.

접촉자 가운데 9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6번 환자의 접촉자가 3명이며, 16번 환자의 접촉자 2명, 3·5·12·15번 환자의 접촉자가 각각 1명이다. 나머지 접촉자는 전원 자가격리 중이다.

현재 격리돼 바이러스 검사 중인 유증상자는 169명이다. 누적 유증상자는 862명으로 이 가운데 693명은 격리에서 해제됐다.

국내 확진환자는 23명으로 이 가운데 1명(2번 환자)은 전날 퇴원했고, 1명(1번 환자)은 퇴원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확진된 1번 환자(35세 여성, 중국인)는 최근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이상 음성으로 확인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발열 직전 바이러스 증폭·기저질환·컨디션 따라 감염 좌우

접촉자 많은데 확진자는 왜 적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광주 첫 확진자인 16번 환자(여·42)와 접촉한 이들이 37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차 감염에 따른 확진자는 단 2명에 그치고 있다.

2차 감염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6번 환자에 의한 감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에 전남도와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16번 환자에 의한 2차 감염 확진자는 딸(21·18번 환자), 오빠(46·22번) 등 단 2명이다. 접촉자는 수백명인데 확진자는 왜 단 2명에 그치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확진자 가족 중에서도 감염 여부가 갈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안병욱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밝히면서 "접촉자 전원에게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지만, 확진자와 밀폐되고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느냐(접촉의 정도), 기저질환(호흡기 만성질환 등)이 있느냐, 당일 몸 컨디션이 어떻느냐에 따라 감염이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잠복기를 거쳐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기 직전과 직후 바이러스 숫자와 전파력 등 강도가 폭증한다는 게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견해는 16번 환자가 증세 발현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3일까지 8



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
광주 서구 보건소는 6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일간 있었던 광주 21세기병원 환자, 의료진, 직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당국이 광주 21세기병원 관련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전날 검사한 결과 일단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발목 인대 수술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딸은 지난 5일 확진 판정이 났다.

증세가 막 시작됐던 지난달 25일(설) 함께 식사를 했던 6명 가운데 오빠(22번)와 딸(18번)만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16번 확진자 남편(47)과 자녀 2명, 22번 환자 부인 등 3명은 환자 증세 이후 식사를 함께하거나 접촉이 잦았는데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태극 여행을 함께 다녀온 모친도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육회를 먹든, 독감 환자와 접촉하든 함께 있던 모두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며 "확진자와 단순히 접촉했다는 이유로 모두가 감염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그는 다만 "국내 일부 확진자 가운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2차에서 양성 확인 판정을 바꾸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심 단계는 아니다"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를 지켜보며 접촉자 모니터링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 확진자 가운데 1차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자가격리된 뒤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음성 판정 자기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강화가 강조되는 대목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낙연 전 총리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방문

7대 중단 지도자 방문 일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을 찾아 김희중 천주교구교회의 의장과 만난다. 설 연휴 직전 시작한 7대 중단 지도자 방문의 일환이다.

또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산업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총리는 4·15 총선 출마자인 서울 종로구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이 전 총리는 종로구 부훈회

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전 총리는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훈행정과 노인복지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하게 예우받도록, 노후가 더 행복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츠제작에디터

춘추관장 한정우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 중인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54·사진) 전 중앙일보 제작총괄 콘텐츠제작에디터를, 춘추관장에 한정우(49) 부대변인을 각각 발탁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향신문을 거쳐 2000년부터 중앙일보에 몸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중앙일보 정치데스크·논설위원·정치에디터·제작총괄 콘텐츠제작에디터 등을 지냈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국회의원 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 ~ 사범)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업체 선정 공고

- 기본 현장정보

구분	내용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제2조 블록 16로트
가설식당 면적	약 200평 (주방40평 포함) / 가설건물별 당사 제공
공사명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 식당 운영업체 선정 개요

구분	내용
식당설비	가설건물 외 모든 설비 및 집기비품 운영업체 부담
식당 운영기간	13개월 (2020. 3. ~ 2021. 04. 30 / 연차시 별도 협의)
제공 식사	중식(조식/석식, 1인식 등은 별도 협의) 1식 ₩ 5,000 (중식 기준 / 부가세 포함)
참여자격	광주/전남지역에서 3년이상 영업 / 1일 500식(중식 기준) 이상 실적보유 업체
평가방법	1단계: 객관평가(매출액 및 실적 외) / 2단계: 제안설명회 및 질의평가
- 입찰서류 제출처 및 상세 안내
: 2020년 2월 7일(금) 광주글로벌모터스 홈페이지 (www.ggmotors.co.kr) 공고내용 참고 (입찰마감: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까지)
빛그린산업단지 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사무실 대면서류 제출 / 070-8280-3882
- 입찰공고 주체: 현대엔지니어링(주)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안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망 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화순 도곡면 효산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완료 즉시입주 1억1800
- 부구 임동 소방도점 준주거 29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전원 부근 상업지 땅 347㎡ 다세대 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당 출몰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막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강면 석현리 915㎡ 청교·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 화가 화실·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 가 건 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총장로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안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부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 급 물 건

- 목포시 대양동 1종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삼향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지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별장 대물교환 가능 은행 3억3천 임대 매도 6·7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